

보도자료

2011년 11월 3일(목)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이용자네트워크국 개인정보보호과 김광수 과 장 (750-2770)
개인정보보호과 오승교 주무관 (750-2774)

기업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개인정보보호 교실’

- 이통 3사인터넷 기업 참여로 초·중·고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국 초·중·고교생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제고와 수준향상을 위해 SKT, KT, LGU+ 이통3사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NHN와 함께 ‘찾아가는 개인정보보호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개인정보보호 교실’은 초·중·고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 개인정보의 중요성, ▲구체적인 보호 방안, ▲주민번호 대체 수단의 활용, ▲위치정보의 개념과 보호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며, 올해 상반기에는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으며, 하반기에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이통사 및 인터넷 사업자의 후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인터넷 이용 연령이 차츰 낮아짐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실천 교육을 병행하기 위해 작년 부터 ‘찾아가는 개인정보보호 교실’을 운영해 왔으며, 현재까지 550개교의 30만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추가로 올해 말까지 총 60개교의 학생 3만여 명을 대상으로 방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교육은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가장 핵심이며 스마트폰 등 개인화된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밝히면서 기업들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했다. 끝.